

[연구논문]

코맥 맥카시의 『로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현대사회의 위기와 구원을 위한 내러티브의 가치

이선주
(서울대)

I. 위기 사회: 묵시론 이전의 삶과 내러티브의 가치

키츠(J. Keats)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새의 노랫소리가 사라진 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제목을 가진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 2장에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해악을 깨닫지 못한다.”¹⁾는 앨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의미심장한 경구가 나온다. 이 책에서 주로 지적된 현대 사회의 역설적인 문제점들은, 생물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의 사용 권한을 그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과, 이른바 ‘전문가의 시대’에서 자신의 분야를 벗어나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되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책임자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딜레마이다.²⁾ 인도 ‘보팔(Bhopal)’ 지역의 유니언카바이드

1) Rachel Carson,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김은령 역, 『침묵의 봄』 (서울: 에코 리브르, 2003), 32.

2) 같은 책, 44-45.

(Union Carbide)사의 화학공장 폭발사고³⁾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은, 자칫 인류 전체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독성물질과 방사능물질 등이 지닌 위험요인을, 첨단기술을 무기로 한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든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에 대해 자연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사회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무사 안일한 태도의 이면으로, 과학기술이 현대의 완벽한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의 조야한 몽둥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⁴⁾는 의혹과 그에 따른 자각도 아울러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야기’라는 수단을 통해 독자와 귀한 공감대를 이루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탁월한 몇몇 작가들의 노력이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 인간이 이성으로 설득되고 논리로서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인류 역사상 무수히 반복된 재앙과 실수들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가 근원적으로 크게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삶의 원리가 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지적인 호소 이외에도,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호소를 더하여 타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화’라는 장치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카슨의 『침묵의 봄』이 발표된 이후 환경을 이슈로 한 전폭적

3) 1984년 12월 미국계 살충제 회사인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인도 자회사 공장에서 일어난 유독가스(메틸 이소시아네이트)의 누출사고로, 사흘 간 1만 여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이후로도 수년 간 후유증으로 수만 여명이 사망한 최악의 산업재해 중 하나. 일명 ‘화학 산업의 히로시마’로까지 불리고 있으며 금전상의 이유로 작은 안전조치들을 무시했던 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사고 이후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남은 독극물조차 처리하지 않고 공장을 폐쇄, 인도를 떠났으며 이를 인수 합병한 ‘다우 케미컬(Dow Chemicals)’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낮은 배상과 후속 조치들의 결여로 인해 미국과 인도 간의 외교적 마찰마저 발생하고 있다. 쉐일라 코로넬 외 지음, 오귀환 역, 『아시아를 읽는 결정적 사건 9: The News』(아시아네트워크, 2008), 78 참조.

4) Carson, 김은령 역, 『침묵의 봄』, 334.

인 사회운동이 촉발되고 애독자였던 케네디 대통령이 환경문제를 다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곧 이어 미국 의회가 국가 환경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일화는 이야기를 통한 공감의 힘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힘은, 무엇보다 기술발전과 자연의 통제에 대한 맹신, 경쟁과 정복이라는 성장 지상주의가 은폐하려는 거대한 함정을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감수성’으로 드러내 보인 작가의 노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생태계의 조화를 깨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키슨의 생태적 사유는 저 멀리 초월주의자 소로(Thoreau)의 사유와도 맞닿아 있는데, 스스로 자연에 대한 필경사이고자 했던 소로의 『월든』(*Walden*)은 살아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철도를 위시한 인위적 원리보다 자연의 원리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도덕적 각성을 이끌어낸 세밀한 내러티브라 할 수 있다.⁵⁾ 『월든』의 진정한 주인공은 인간인 ‘내(I)’가 아닌⁶⁾ 바로 숲과 호수를 비롯한 자연환경이며 이는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착된 유의미한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소로는 논증적인 설득으로 독자에게 강압하기보다는 2년 2개월간의 숲속 경험을 매우 상세한 이야기로 단순히 풀어놓는 것으로 대신했다. 산업화와 피상적 팽창이 아닌 대자연의 원리를 통해 본질에 가까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명한 진실을 자신의 소박한 삶을 기록하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20세기 인본주의 지리학자인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진정성(authenticity)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으로 향하는 경험이, 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경험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야기한 바 있다.⁷⁾ 무엇보다 그는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

5) 신문수,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88-101.

6) 실제로 *Walden* 에서는 자아를 지칭하는 “I”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같은 책, 93.

7)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김덕현 역, 『장소

러 광범위한 무장소성의 확산이 ‘깊이 뿌리 내린 삶으로부터 뿌리 뽑힌 삶’으로의 극단적인 변화를 잉태했다고 전제한다. 두드러진 서술의 전략으로서, 산업화가 문화적 지리적인 획일화와 함께 기존의 지방색이나 다양성을 소멸시킴으로써 ‘장소상실(무장소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내린 후, 캐나다 토론토나 온타리오 주의 엘리엇 호수, 유럽의 각 도시, 휴양지인 하와이와 디즈니랜드 등지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자신과 몇몇 목격자들의 실제 경험담과 솔직한 심경 등을 병치해두고 있다. 말미에 던지시킨 “점유된 생활공간에 애착을 부여함으로써 최대한 생활경험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마토르(Matore)⁸⁾의 조언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책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하이데거(Heidegger)를 위시한 실증론자들의 과학적 논리와 더불어 이러한 작가의 경험담이 독자 자신의 경험들과 맞물려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센터멘탈한 상품으로 전략해버린 집, 관광객을 위한 타지향적 장소들, 도시개발을 통한 표준화와 획일화, 전쟁 및 개발에 의한 장소파괴 등을 바라보며 “즐거기보다는 참아야만 하고 무시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은 곧 인간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도 한 인문지리학자의 진심의 울림이 그가 풀어놓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 개개인에게 온전하게 전달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가 이끌어내는 공감과 궁극적인 행동의 변화라는 큰 잠재력에 주목하여, 어슐라 하이즈(Ursula Heise)는 *Narrative in the World Risk Society* 에서 환경운동에서도 언어의 문제, 메타포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즉 위기를 인식하는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제도나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학적, 문화적 개념화는 일반 대중에게 과학정보보다 훨씬 친숙

와 장소상실』(서울: 논형, 2005), 143-174.

8) 같은 책, 295.

9) 같은 책, 298.

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위기의 선택과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TV 뉴스에서, 스웨덴의 한 터널 공사장에 흐르는 독성 물질의 이미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풍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파스토랄(pastoral)이라고 하는 서양 문화의 전원 풍경에 대한 낭만적 인식에 어느 정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¹⁰⁾ 여겨진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야기 모험이 현대의 유전자 논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점은 쉽게 납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담론(toxic discourse)에 대해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로렌스 뷰얼(Lawrence Buell)의 주장¹¹⁾도 문학 담론이 현재의 위기사회를 드러내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네 가지의 요소란, 첫째 ‘파괴된 전원’에 대한 수사(a rhetoric of disrupted pastoral), 둘째 ‘완전히 오염되어버린 세계의 총체적 이미지’(totalizing images of an entirely polluted world), 셋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에 대항하는 억압받고 약한 자들의 도덕적 열정’(moral passion of the weak and politically repressed against those perceived to be strong and politically powerful), 넷째 ‘오염되고 흉물스러워진 풍경의 묘사에 표면화된 고딕적 요소’(gothic elements that surface in descriptions of deformed bodies and polluted landscapes) 등인데 이를 이분법적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염 이전의 전원적 삶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pastoral)나 재앙 이후의 처참한 삶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담론(apocalyptic narrative)은 모두 환경문제에 관한

10) Ursula Heise, “Narrative in the World Risk Society,” *Sense of Place and Sense of Planet: Environmental Imagination of the Global* (Oxford Univ. Press, 2008), 119-159.

11) Lawrence Buell, *Writing for an Endangered World: Literature,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U.S. and Beyond* (Harvard Univ. Press, 2001), 37.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야기의 규모를 지구 전체로 확대시켜 상상하는 독특한 형식의 내러티브이다. 대개 종말론적 작가들은 파멸 위기에 처한 지구를 생생히 보여주고 인간이 변하면 이러한 종말을 피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이러한 묵시론적인 이야기가 근래에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의 심각한 기후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후문제와 같은 환경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위기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 영향이 ‘전 세계적’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현대사회의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찰스 페로우(Charles Perrow)가 복잡한 ‘기술시스템’ 때문이라고¹²⁾ 지적한 것이나, 예측 가능한 산업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위기사회’에서는 환경오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정한 계층이나 국가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이야기는, 사회가 근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환경오염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된다고 주장한 막스 베버(Max Weber)나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와는 달리, “가난은 계층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poverty is hierarchical, smog is democratic)이라고 단언한 벡의 경구는, 역설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복잡성으로부터 잉태된 예측 불가능한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자각의 촉구이자 사회계급이 미래의 위기노출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리라는 예언이라 할 수 있다. “위험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Risk never sleeps)¹³⁾ 라는 한 미국은행의 여행자보험 광고 문구처럼, 현대인들은 핵전쟁, 환경재앙, 테러리스트 공격, 사고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 최근의 금융 경제 시

12) Charles Perrow,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Princeton Univ. Press, 1999), 327-330.

13) Susan Mizruchi, “Risk Theory and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American Literary History* 22.1 (2010), 110.

시스템 붕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편의를 위해 사회를 근대화시켜 나갈수록 복잡성으로 인한 재앙의 발생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이고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You pay for everything)¹⁴⁾라는 암묵적 경고와 같이 미래의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지도 모르는 대재앙을 막기 위한 환경적 메타포로서의 문학의 가치는 이 지점에서 다시 부각되어진다.

“홀로 기차를 타고 가는 통근자와 홀로 기차를 타고 가는 통근자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동일한 통근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an alienated commuter riding a train and this same commuter reading a book about an alienated commuter riding a train)¹⁵⁾라는 이야기와 관련해 볼 때 소설의 산파적 역할, 즉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 안에 내재된 도덕적 가치를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의 강렬한 도덕적 우화로서의 문학의 역할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위압적인 설득과 강요로 일관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동조를 통한 내면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잘 드러내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맥 맥카시(Cormac McCarthy)의 『로드』(*The Road*)를 중심으로 목시론 이후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구원을 위한 내러티브의 역할이 무엇이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4) Cormac McCarthy, *The Road* (Vintage, 2006), 111. 이후 이 작품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 쪽수만 표시함.

15) Thomas H. Schaub, “Secular Scripture and Cormac McCarthy’s *The Road*,” *Renascence* 61.3 (2009), 160.

II. 『로드』: 묵시론 그 이후의 삶과 구원의 노상에서

맥카시의 『로드』는 “책들은 다른 책들로부터 만들어진다”(Books are made from other books)라는 그의 소신대로,¹⁶⁾ 성경이나 단테의 『신곡』, 『오딧세이』, 『로빈슨 크루소』 등의 고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문학 장르와 영화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인유(allusion)와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통해 우리에게 강한 환경적 메시지와 아울러 가족애라는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각인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대재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충격적 상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실 『로드』의 플롯은 극히 단순한데, 작품 내내 주인공인 이름 모를 남자와 그의 아이는 마냥 걷고, 음식 부스러기와 휘발유를 찾아 헤매고, 짧은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고, 인간들의 삶이 남긴 흔적의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기만 할 뿐이다.¹⁷⁾ 극도로 미니멀한 문체가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사막과 같은 황폐한 세계를 환유한 것이라는¹⁸⁾ 룬 그롤룬드(Rune Graulund)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여기서의 사막이란 단지 모든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세계가 메말라버린 ‘부재’(deserta, absence)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세상의 발견을 위한 토대’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지명들이 모두 삭제되어 나타나는 것은, 종말 이후의 세계에서는 지워져 버린 과거세계의 ‘의미’가 완전히 유보되어 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장소는 단지 등장인물들에 의해 계산되어지고 식량과 온기라는 관점에서 독자에게 전달될 뿐이다¹⁹⁾(The man thought they had enough food to

16) Mizruchi, “Risk Theory and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128.

17) Shelly L. Rambo, “Beyond Redemption?: Reading Cormac McCarthy’s *The Road* after the End of the World,”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41.2 (2008), 99.

18) Rune Graulund, “Fulcrums and Borderlands. A Desert Reading of Cormac McCarthy’s *The Road*,” *Orbis Litterarum* 65.1 (2010), 58.

19) Ashley Kunsu, “Maps of the World in Its Becoming: Post-Apocalyptic Naming in

get through the mountains but there was no way to tell. The pass at the watershed was five thousand feet and it was going to be very cold, 29). 간결하지만 고도로 응축된 아름다운 문체, 때때로 엿보이는 현실과 과거의 교차적 진술, 빈번한 시점 이동 등은 맥카시가 헤밍웨이(Hemingway)와 포크너(Faulkner)의 문학적 유산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이 창조하는 세계에 녹여내는 문학적 장인임을 입증해준다.

성경적 인유인 ‘불(핵폭발)’로 인한 재난 이후 메마른 회색 깃터미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무너진 사회질서 속에서 잃어버린 옛 세계에 대한 아련한 향수와 싸우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의 투쟁을 견뎌내야만 한다. 핵전쟁이 휩쓸고 간 광야는 ‘기억되는 과거와 함께 소멸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주인공들의 끊임없는 되물음의 장소이자 안타까운 탄식의 공간이다. “황폐하고 고요하고 신조차 없는”(barren, silent, godless, 4)으로 상징되는 낯선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단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또 하나의 혹독한 겨울을 피하기 위해 혹은 인간사회의 막연한 온정을 찾기를 바라면서 정처 없이 남쪽으로 길을 떠난다. 이 소설 속에 전개되는 풍경은 주인공들이 여행을 계속해서 나아가든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든 별 변화가 없는 듯 보이는 모호하고 단조로운 장면의 연속인 동시에 무한정의 무질서가 확장되어가는 엔트로피의 세계이기도 하다.²⁰⁾ “서로가 세상의 전부인”(each the other’s world entire, 6) 두 주인공이 ‘영적 여행(spiritual journey)’에 비견될 수 있는 여행길에 올랐으면서도 장기적인 목표가 뭐냐는 아이의 물음에 그의 아버지가 미처 준비된 대답을 할 수가 없는(160)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재난이 휩쓸고 간 세상의 생존자들이 처해있는 삶의 전형적인 양태라 할 수 있다.

Cormac McCarthy’s *The Road*,”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33.1 (2009), 63.
20) Graulund, “Fulcrums and Borderlands. A Desert Reading of Cormac McCarthy’s *The Road*,” 60.

맥카시의 『로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소재 중의 하나는 자기 파괴적인 소비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쇼핑 카트’이다.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카트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존을 위한 전리품들을 싣고 가는 불가항력적인 약탈의 증거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탐욕을 상징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흑요석”(obsidian), “구루병”(rachitic), “구”(colliculus),²¹⁾ “풀 벤 자국”(sedge kerfs)²²⁾ 등의 단어들이 ‘최소한의 물질들로 연명하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축소되어버린 새로운 세계’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면, 카트는 잃어버린 과거와 그 과거가 내포하고 있던 잠재적 위협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카트에 생필품을 싣고 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는 주인공들을 바라볼 때 현대인이 철저히 신봉하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허망함과 그 몰락이 가져오게 될 아이러니한 삶의 방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슈퍼’마켓(SUPER market)이라는 소품적 내러티브 속에서 카트와 함께 등장하는 ‘코카콜라’ 역시 묵시론 전후의 삶을 대비시켜 현대 물질문명이 안고 있는 과도한 소비주의의 환상을 드러내 보이는 또 하나의 장치이다.²³⁾ 병커 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질적인 인락은 그들에게 결코 영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나아가 쇼핑 카트와 코카콜라에 의해서 표상되는 탐욕과 폭력은 대재앙 이후에 창궐하는 끔찍한 ‘식인 풍습’(cannibalism)으로 전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²⁴⁾

이 믿지 못할 황량한 세계에서 그래도 신이 존재한다고 남자가 유일하게 믿는 근거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다. 아이가 곧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결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것(He said: If he is not the

21) an anatomical prominence

22) gash made in lawn grass by cutting tool

23) Brian Donnelly, ““Coke Is It!”: Placing Coca-Cola in McCarthy’s *The Road*,” *The Explicator* 68.1 (2010), 72.

24) Mizruchi, “Risk Theory and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123.

word of God God never spoke, 5)이라는 남자의 단언은 아들이 곧 신성의 표상임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남자가 자각하고 있는 유일한 과제도 바로 자신의 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이 임무를 신에 의해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My job is to take care of you. I was appointed to do that by God, 77). 이 소설 속에서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인물은 엘라이(Ely)라는 노인인데, “신은 없다”(There is no God)라는 노인의 주장에 맞서 “아니오”(No)라고 남자가 바로 부정해버릴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아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신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의 아이가 지니고 있는 따뜻한 인성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인성마저 메말라버린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아들은 타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본능처럼 간직하고 있다. 아이는 자신들 이외에도 곳곳에 숨어 있을 “좋은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채, 처지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한다. 우연히 발견한 개를 제발 죽이지 말아 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절히 사정하는 장면(82)이나 길에서 목격한 또래의 남자아이를 자신들의 여행에 동행하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84-85),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 얼마 남지 않은 통조림을 기꺼이 나누어주려는 아이의 행동으로부터 아직 사라지지 않은 따스한 인성을 목격할 수 있다. 남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이러한 아들을 혼돈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며 이는 곧 남자 자신의 문명성 혹은 인간성을 지켜내는 일과 동일시된다.

아이가 상징하는 기본적 인간성이 상실된 세상은 그야말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잔인하다. 남자와 소년이 길을 가다 목도하게 된 검게 탄 아기의 시체는 잿더미로 변한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할 때’ 어떤 극단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머리가 잘리고 내장이 빠진 아기가 꼬챙이에 꿰여서 그을려 같은 인간들의 먹이로 전락해버린 모습은 대재앙이 가져오게 될 비극이 단순한 인류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성이 흔적도 없이 말살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준다.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아, 아빠. 남자는 고개를 돌려 다시 보았다. 소년이 본 것은 검게 탄 아기였다. 머리가 잘리고 내장이 빠진 채 꼬챙이에 꿰어져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남자는 허리를 굽혀 소년을 안고 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년을 꼭 끌어안았다. 미안해. 남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미안하구나.

The boy shook his head. Oh Papa, he said. He turned and looked again. What the boy had seen was a charred human infant headless and gutted and blackening on the spit. he bent and picked the boy up and started the road with him, holding him close. I'm sorry he whispered. I'm sorry. (198)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는 “좋은 사람들”인 자신들만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식인행위만은 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다짐한다.

소년은 고개를 돌려 남자를 보았다. 운 것 같았다.
말해보라니까.
우린 아무도 안 잡아먹을 거죠, 그죠?
그래. 물론이지.
우리가 굶더라도요?
지금 굶고 있잖아.
안 굶는다고 했잖아요.
안 죽는다고 했지. 굶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았어.
어쨌든 안 잡아먹을 거죠.
그래. 안 잡아먹어.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He turned and looked. He looked like he'd been crying.
 Just tell me.
 We wouldnt ever eat anybody, would we?
 No. Of course not.
 Even if we were starving?
 We're starving now.
 You said we werent.
 I said we werent dying. I didn't say we werent starving.
 But we wouldnt.
 No. We wouldnt.
 No matter what.
 No. No matter what. (128)

조지 몬비오(George Monbiot)는 이 소설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중요한 환경 지침서”(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book ever written)²⁵⁾라고 천명하며, 이 책이 주는 환경적 메시지는 크게 “인류애야말로 유일한 의미의 원천이기 때문에 윤리, 미, 인간의 생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된다”는 것과 “자연이나 생물이 없다면 인성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씨앗을 뿌리고 재배할 ‘선’이 존재하려면 풍요롭고 비옥한 토양이 그 선결요건이 된다”라는 두 가지 사실²⁶⁾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즉, 아무리 고상한 인간의 의지나 목적이 있어도 토대가 되어야 할 자연 환경이 사막처럼 메말라버린다면 그 존재가치마저 담보 받지 못하게 된다.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 불과 재의 이미지, 혹독한 겨울이라는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대재앙의 원인이 아마 핵폭발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맥카시의 작가로서의 통찰은 그 원인을 핵폭발에 한정하지 않는 영민함을 보여준다. 인류가 멸종될 정도의 큰 재난의 원인은 핵폭발이 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혜성과의 충돌이나 지구

25) Graulund, “Fulcrums and Borderlands. A Desert Reading of Cormac McCarthy’s *The Road*,” 67-68.

26) Ibid. 74-75.

온난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다. “1시 17분에 멈추어져 있는 세계”(52)는 재앙이 순식간에 지구상의 전 문명을 휩쓸어버렸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지만, 소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한 채 불특정한 시점에서 자신의 곁에 잠든 아이를 확인하는 이름 모를 남자를 조명하는 데서 시작된다(3). 재앙의 원인이 작품 속에서 감추어진 것은 부분적으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함정이 고스란히 포착될 수 없다²⁷⁾는 작가의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 소설은 종말의 이유에 대한 막연한 추측과 함께 또한 주인공의 ‘익명성’이 가져오는 의미의 가중치를 독자에게 부담 지운다. 익명성이라는 장치로 인해 독자는, “그”(he)와 “아이”(the child)로 명명되는 이 필사적이고 고독한 여행의 두 주인공이 제 3자가 아닌 바로 독자 자신일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다른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그들의 행위에 최대한 주목해서 읽어 나갈 것을 요구하는 작가의 숨은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소설 전체를 통해 모든 인명과 지명은 생략이 된 채 진술되지만 ‘실제’이름에 가장 근접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papa)라는 호칭이다. 추상적인 기표와 기의로만 이루어진 잿빛 세계를 배경으로 “아빠”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종말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부자간의 사랑이라는 가장 근원적 가치를 드러내 보인다.²⁸⁾

이 글의 주인공인 ‘그’는 본원적 의미의 실향민이다. 호세 사라마고(José Saramago)의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이유 없이 시력을 하나둘 상실해가는 사람들처럼, 마치 녹내장이 생긴 눈에 비친 듯한 뿌연 세상 속에서 남자가 기억하는 유년시절의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쪽으로 향하는 도중 남자가 자란 집에 들르게 되지만 그 곳은 이미 전과

27) Ibid., 69.

28) Kunsu, “Maps of the World in Its Becoming: Post-Apocalyptic Naming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67.

같은 모습이 아니다. 크리스마스의 추억이나 앞마당의 라일락 정원은 이제 남자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며 이 기억은 살아남은 자에게 오히려 아픈 현실의 고통을 더욱 통감케 하는 장치가 된다. 한순간이라도 옛 추억이 주는 허망한 안식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남자에게 아들은 오직 빨리 떠날 것만을 종용한다. 삶의 뿌리에 해당하는 고향집이 오히려 달아나야 할 공포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처한 삶의 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폐허가 된 정비소에서 수화기를 들어 오래 된 아버지의 집 전화번호를 누르는 남자의 행동을 소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고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자들의 지독한 상실감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머릿속에 내가 집어넣은 것들은 그곳에 영원히 남는다. ... 기억하고 싶은 건 잊고 잊어버리고 싶은 건 기억하지.

Just remember that the things you put into your head are there forever...
You forget what you want to remember and you remember what you want to forget. (12)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막연한 기억을 남자는 그의 아들에게 당연히 이해시킬 수 없다. 지독한 상실감과 함께 남자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조차 마치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한순간의 꿈인 것처럼 느껴지기에 이른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소년을 보았다. 어찌면 남자는 그 자신이 소년에게는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한 것일지도 몰랐다. 이제는 사라진 행성 출신의 존재. 그 행성에 관한 이야기는 수상쩍었다.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이 잃어버린 세계를 구축할 때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어찌면 소년이 자신보다 이 점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Maybe he understood for the first time that to the boy he was himself an alien. A being from a planet that no longer existed. The tales of which were suspect. He could not construct for the child's pleasure the world he'd lost without constructing the loss as well and he thought perhaps the child had known this better than he. (153-154)

무너져버린 세계는 모든 자연물이 사라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성이 메말라버리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린 세계이다. 아득한 원시시대에서부터 이어져오던 인간문명의 흔적은 이제 지구멸망이라는 서글픈 신탁의 올림만을 남겨놓았다.

지금 이 일 년 중 어느 때일까? 아이는 몇 살이지? 남자는 길로 걸어가 섰다. 정적. 지구에서 말라붙는 살리터. 물에 잠긴 곳 위로는 다 타버린 채 진흙범벅이 된 도시의 형체들. 교차로에는 고인돌이 놓인 땅. 그곳에서는 이미 할 말을 다 해버린 신탁이 돌에 새겨진 채 뼈만 남아 썩어가고 있었다. 오직 바람 소리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신탁을 했다고?

What time of year? What age of the child? He walked out into the road and stood. The silence. The salitter drying from the earth. The mudstained shapes of flooded cities burned to the waterline. At a crossroads a ground set with dolmen stones where the spoken bones of oracles lay moldering. No sound but the wind. What will you say? A living man spoke these lines? (261)

“살리터”(Salitter)는 야콥 뵘메(Jakob Boehme)의 *Die Morgenroete im Ausgang*²⁹⁾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신성’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샤웁(Schaub)은 “그”로 나타나는 남자의 점진적 기억상실은 결국 세상에서 이러한 신성이 메말라가는 종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³⁰⁾

29) 영문으로는 『오로라』(*The Aurora*)로 번역됨.

이 이야기에서 세계가 사라져가는 것은 단지 세상이 불타버렸고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아들과는 달리 불로 소멸해버리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는 아버지의 추억에서 마저 그 흔적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망각 속에 사라진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가 잃어가고 있는 기억들에 대해 존재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 소설의 특징적인 책략이기도 하다. 그는 “입가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묘한 복숭아 맛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난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살 수만 있다면 결국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라 생각했다.

In this story the world is disappearing not simply because the world is burned and is still burning as they travel, but because the world is losing its footing in the memory of the father, who unlike the son remembers the world before fire. At the same time, in a characteristic strategy of the novel, narrating what is forgotten gives presence on the page to the memories the father is losing. He wakes with “the uncanny taste of peach fading in his mouth.” He thought if he lived long enough the world at last would all be lost.

사라져버린 세계의 풍요로움을 유일하게 증명해주는 것이 고작 통조림 캔에 든 ‘배’(pears)에 불과하고(139) 모든 자연환경과 인성마저 소멸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 혹은 ‘가족 간의 유대’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을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불을 운반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이 소설에서 “불”은 대재앙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이 재앙을 극복하게 해줄 마지막 수단이기도 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우린 괜찮은 거죠, 그죠 아빠?
그래, 우린 괜찮아.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죠.

30) Schaub, “Secular Scripture and Cormac McCarthy’s *The Road*,” 155.

그래, 맞아.
우린 불을 운반하니까요.
그래. 우린 불을 운반하니까.

We're going to be okay, aren't we papa?
Yes, we are.
And nothing bad is going to happen us.
That's right.
Because we're carrying fire.
Yes. Because we're carrying fire. (83)

끝없는 절망 후에 그들은 죽음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I wish I was with my mom, 55). 사실 이미 남자의 아내는 생존자들이 이겨내야 할 끔찍한 고통의 삶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통해 회피해 버렸다(56). 그의 아내가 자신의 죽음에 아들을 동반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가지 못할 남편을 위해서였다(57). 재앙으로 인해 이미 눈이 멀어버린 남자의 아내는 자기 자신은 좀비 같은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기 위해 ‘죽음’이라는 새로운 애인을 선택하면서도 끝내 남편의 단 하나의 생명줄이 될 아들만은 세상에 남겨두는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로드』에 등장하는 가장 특징적인 인물 중의 하나는 노상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이다. 유일하게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을 밝히는 이 노인은 종말론적 위기를 맞아 허무주의에 빠진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엘라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한편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점치는 예지능력을 지닌 현인 같은 분위기가 풍기기도 한다. 오랫동안 ‘불’을 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172) 그는 남자와 소년이 나누어준 통조림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내내 무덤덤하기만 하다. 또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살아남은 인간들이 그 예언자들이라 단언하기도 한다(170). 스스로 죽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미 죽

있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노인은 ‘생중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 전형일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가 살아남아 길에서 만난 거라면 우리는 할 말이 있을거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린 할 말이 없소.

If something had happened and we were survivors and we met on the road then we'd have something to talk about. But we're not. So we don't. (172)

엘라이라고 불리는 노인은 사실 남자와 아이를 믿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한다. 자신의 실명을 알지 못하면 남자와 아이가 어디에 가서 자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게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고 타인에게 생중사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들킬 일도 없기 때문이다(I couldn't trust you with it. To do something with it. I don't want anybody talking about me. To say where I was or what I said when I was there. I mean You could talk about me maybe. But nobody could say that it was me, 171).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신도 살 수 없고 (172) 결국 인간 모두가 사라지고 세상에 죽음만이 남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는 노인의 이야기는 인간애가 소멸된 세상은 이미 그에게 있어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재앙 이후에 태어나 이전 세상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아이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인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반복해서 들어왔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상적인 인성을 익혀왔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인간사회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표상해주는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며, 동시대의 인간사회를 결속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전승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아라비안나이트에서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세라자데와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로 인간이 인간으로 나아가고 기본적 유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도 자신의 아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시내에서 다리에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침울해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언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강요한다.

뭔가 얘기를 해보렴.

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뇨.

왜?

소년은 남자를 보다가 눈길을 돌렸다.

왜?

그런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일 필요는 없어. 이야기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선 우리가 늘 사람들을 돕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You have to talk to me, he said.

I'm talking.

Are you sure?

I'm talking now.

Do you want me to tell you a story?

No.

Why not?

The boy looked at him and looked away.

Why not?

Those stories are not true.

They dont have to be true. They're stories.

Yes. But in the stories we're always helping people and we dont help people. (267-268)

이야기 혹은 문학작품이 비록 현실과의 완벽한 일치나 일대일 대응을 보여주지는 못해도 그 안에 함의된 ‘인간다움’이라는 가치를 청자 혹은 독자에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존재 의의가 있음을 알아차리기에는 아이가 아직 너무 순진하다고 볼 수 있다.

“불을 운반하는” 존재인 아들을 기필코 신이 약속한 이상향 즉 남쪽으로 데려가려던 아버지의 힘든 투쟁은 “무관심한 태양”(219)과 “하나의 거대한 소금 묘지”(222)로 묘사되는 죽음의 바다에서 허무한 종착을 맞이하게 된다. 신이 내린 무거운 징벌과도 같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의 해변에서 부서지는 어떤 이질적이고 황량한 바다”(the desolation of some alien sea breaking on the shores of a world unheard of, 215)속에서 더 이상의 구원은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다. 한때는 유조선이었을 ‘난파선’의 발견은 그나마의 유일한 위안이다. 한 사람의 인간도 살아있지 않는 선체는 ‘노아의 방주’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말을 맞은 지구에 대한 메타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다행히 부자를 위한 약간의 식량과 조명탄, 구급약을 제공해 준다. 종말론적인 세상을 강하게 표상하면서도 아울러 구원의 희망에 대한 약간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해안도시의 외곽에 도착해서 차를 끊여 마시는 장면에서, 부상을 입은 데다 질병으로 이미 목숨이 다해가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이제 보호해야만 하는 아이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자신들의 식량을 훔쳐간 도둑으로부터 옷과 식량을 강제로 다시 찾은 후에 흐

느끼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짜증을 내는데(You're not the one who has to worry about everything, 259) 이에 대해 아들은 “제가 바로 그 래요”, “바로 그런 존재예요.”라고 대답한다. 이 장면에서 아이는 자신 안에 내재된 ‘신성’을 이미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³¹⁾.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는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층 성숙해진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나쁜 사람들”의 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순진하고 유약한 꼬마가 아니다. 역전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속에, 아이가 밤새 아버지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나(273) 자신이 세상에서 행한 가장 용감한 행위가 바로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272)이라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끈끈한 부자간의 정을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세대를 이어가야만 하는 인간의 필연적 숙명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상향으로 아들을 이끌어 온 임무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는 시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아버지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에서 ‘크리스천’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행을 계속하는 것처럼, 『로드』의 죽음을 앞둔 아버지도 불확실한 구원의 희망에 의지해 고단한 여정을 이어온 것인데 이제 그의 아들은 마치 이 세상의 미래를 약속하는 한 가닥 빛줄기와 같은 메시아의 이미지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는 비틀비틀 걸어갔다. 념마를 걸친 채 더럽게. 희망도 없이.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카트에 몸을 기대면 소년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눈물이 그렇해진 눈을 들어 소년이 거기 길에 서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 광

31) Ibid., 162.

야에서 장막처럼 빛을 발하는 소년.

Slumping along. Filthy, ragged, hopeless. He'd stop and lean on the cart and the boy would go on and then stop and look back and he would raise his weeping eyes and see him standing there in the road looking back at him from some unimaginable future, glowing in that waste like a tabernacle.

(273)

급기야 소년의 주위로 온통 광채가 휩싸는 듯하고 곧 그는 예언자 혹은 신과 같은 존재로 격상된다(There is no prophet in the earth's long chronicle who's not honored here today. Whatever form you spoke of you were right, 277). 이 소설의 숨은 화자나 아버지와는 달리 소년은 종말 이후에 태어나 구세계의 파괴라는 원죄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될 메시아적 아담이자,³²⁾ “신성을 간직할 수 있는 황금성배”(Golden chalice, good to house a god, 75)인 것이다. 아버지가 죽기 전날 홀로 남겨지게 될 아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버지의 말들이 허망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질 만큼 성장해 있다. 살아서 불을 계속 운반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당부에 “정말이에요? 불 말이에요?”라고 질문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짧게 “그래”라고 대답한다. 아직 자신의 말이 지니는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걸어온 삶과 아이가 살아가게 될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네 안에 있어. 항상 거기에 있었어. 내 눈에는 보이는데.

Where is it? I don't know where it is.

Yes you do. It's inside you. It was always there. I can see it. (279)

32) Kunsu, “Maps of the World in Its Becoming: Post-Apocalyptic Naming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65.

‘불을 운반하는 자’로 선택받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마지막 진심을 전한다. 죽은 후라도 자신의 온 마음은 아들의 마음 속에 함께 있으며 약간의 상상력과 연습만 있다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279)과 ‘선’이 미래의 희망인 아이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Goodness will find the little boy. It always has. It will again, 281) 아버지의 예언은 아들이 새로운 동행을 만나면서 결국 실현되는 듯이 보인다. 여행을 함께 할 새로운 가족은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좋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그들 부부는 아이들이 있고(284), 종교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소년의 아버지의 시신에 담요를 덮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소년의 눈에서 보면 그 가족은 “불을 운반하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인 셈이다. 새로운 일행이 된 여자는 소년에게 가끔 신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다. 소년도 신과 말을 하려 했지만 곧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를 보고 여자는 소년을 끌어안으며 신의 ‘숨’이 곧 그의 ‘숨’이고 그 ‘숨’은 여러 세대를 내려가는 동안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건네진다는 것을 일러 준다(She said that the breath of God was his breath yet though it pass from man to man through all of time, 286).

이 소설의 마지막은 남자의 아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이러한 초월적 신성을 지닌 이들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인류를 결국 “좋은 사람들”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이끼 냄새가 나는 호박 빛 물속에서 부드럽게 잔물결을 일으키는 송어의 등 위에는 새롭게 생성되어가는 세계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다시는 바로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시원적이며 복잡한 새 세계의 형성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도와 미로 되돌릴 수 없는 것. 다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을 그린.

Maps and mazes. Of a thing which could not be put back. Not be made right again. (287)

헤밍웨이의 단편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강』(*The Big Two-Hearted River*)에서 주인공인 닉 애덤스(Nick Adams)가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그 안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갈색 송어를 바라보며 전쟁이 남긴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드』의 에필로그에 나타난 송어도 다시 생성되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암시하는 메타포가 될 수 있다. 소로와 헤밍웨이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송어낚시’는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정신적인 균형을 회복해나가는 성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³³⁾ 사실 도덕적으로 포장된 모든 교훈들을 우선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살아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뒤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이다.³⁴⁾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삶의 지속’이 가져다줄 가능성과 살아갈 용기였을 것이다(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we’re still here. [...] It counts for something, 269). 주인공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세 가지 관점(American redemption, trauma, harrowing of hell)에 주목해서 살펴볼 것을 제안한 셸리 램보(Shelly L. Rambo)에 따르면, 『로드』는 ‘구원’이나 ‘죽음보다 우위에 선 승리’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양식에 대한 서약서이자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목격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이들의 이야기이다.³⁵⁾ 수전 미즈루카이(Susan Mizruchi)의 지적

33) Schaub, “Secular Scripture and Cormac McCarthy’s *The Road*,” 156.

34) Graulund, “Fulcrums and Borderlands. A Desert Reading of Cormac McCarthy’s *The Road*,” 72-73.

35) Rambo, “Beyond Redemption?: Reading Cormac McCarthy’s *The Road* after the End of the World,” 115.

대로 현대의 역사는 그 자체로 ‘위험’이라는 내러티브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³⁶⁾ 다만 『로드』에서 살아남은 아들이 구원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듯이 보다 더 이성적이고 자비로운 원칙에 기반을 둔 사회질서가 미래에 성립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송어들이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수수께끼”(mystery, 287)처럼 미래의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희망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hope itself matters)³⁷⁾는 메시지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이다.

36) Mizruchi, “Risk Theory and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129.

37) Graulund, “Fulcrums and Borderlands. A Desert Reading of Cormac McCarthy’s *The Road*,” 76.

인용문헌

- 신문수 엮음.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Beck, Stefan. “Cormac McCarthy *The Road*.” *New Criterion* 25.2 (2006): 78-79. Beck, Ulrich. *World Risk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Bruyn, Ben De. “Borrowed Time, Borrowed World and Borrowed Eyes: Care, Ruin and Vision in McCarthy’s *The Road* and Harrison’s Ecocriticism.” *English Studies* 91.7 (2010): 776-789.
- Buell, Lawrence. *Writing for an Endangered World: Literature,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U.S. and Beyo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Carson, Rachel.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김은령 역, 『침묵의 봄』. 에코 리브르, 2003.
- Donnelly, Brian. ““Coke Is It!”: Placing Coca-Cola in McCarthy’s *The Road*.” *The Explicator* 68.1 (2010): 70-73.
- Gehrke, Steve. “*The Road*.” *The Missouri Review* 30.1 (2007): 151-152.
- Graulund, Rune. “Fulcrums and Borderlands. A Desert Reading of Cormac McCarthy’s *The Road*.” *Orbis Litterarum* 65.1 (2010): 57-78.
- Grindley, Carl J. “The Setting of McCarthy’s *The Road*.” *The Explicator* 67.1 (2008): 11-13.
- Heise, Ursula. “Narrative in the World Risk Society.” *Sense of Place and Sense of Planet: Environmental Imagination of the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Hunt, Alex and Jacobsen, Martin M. “Cormac McCarthy’s *The Road* and Plato’s Simile of the Sun.” *The Explicator* 66.3 (Spring 2008): 155-158.
- Kunsa, Ashley “Maps of the World in Its Becoming: Post-Apocalyptic Naming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33.1 (Fall 2009): 57-74.
- McCarthy, Cormac. *The Road*. Vintage, 2006. 정영목 역, 『로드』. 문학동네, 2008.
- Mizruchi, Susan. “Risk Theory and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 American Literary History* 22.1 (Spring 2010): 109-135.
- Monbiot, George. "Civilization Ends with a Shutdown of Human Concern. Are We There Already?" *The Guardian* (30 Oct. 2007).
- Perrow, Charles.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Rambo, Shelly L. "Beyond Redemption?: Reading Cormac McCarthy's *The Road* after the End of the World."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41.2 (2008): 99-120.
- Relph, Edward.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김덕현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 Ryan, Matthew. "Hope is Critical: Cormac McCarthy's *The Road*." *Arena Journal* 31 (2008): 151-162.
- Sanders, Scott Russel. "Speaking a Word for Nature."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 Cheryl Glotfelty and Herold Fromm. Georgia University Press, 1996.
- Schaub, Thomas H. "Secular Scripture and Cormac McCarthy's *The Road*." *Renascence* 61.3 (2009): 153-168.
- Skrimshire, Stefan. "There is no God and we are his prophets: Deconstructing Redemption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5.1 (2011): 1-14.
- Tuan, Yi-Fu. *Topophilia :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s,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논문 투고일자: 2011. 4. 20

■ 심사(수정)일자: 2011. 5. 7

■ 게재 확정일자: 2011. 5. 13

Abstract

**The Crisis of Modern Society and the Value of
Narratives for the Redemption – Cormac
McCarthy’s *The Road***

Son Ju Y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look at literature or narratives as a useful tool for recognizing the hidden crises of modern society by taking *The Road* as an example. Unlike Max Weber or Anthony Giddens who asserted that modern society’s complexity itself would ensure the stability of the social system, Ulrich Beck once paradoxically predicted that the more complicated a society becomes, the more dangers it inevitably contains due to the increasing unpredictability in it. It is often said ‘unpredictability’ and ‘universality’ are the two most marked features of modern crises. “Risk never sleeps” in every modern society and the possibility that “we’ll pay for everything” can’t be extirpated after all. Here the merit of narratives as a powerful environmental metaphor for deterring the grim catastrophe gets highlighted. The role of ‘narratives’ as an ethic parable can not be neglected at all. To convert someone’s stories into the stories of myself, the ‘internalization’ through emotional synchronism ought to be an imperative. Cormac McCarthy’s *The Road* is characterized by ample allusions from various sources and concise literary style harboring its beauty at the same time. It can deeply engrave both the

environmental message and family bond upon the reader by picturing a father and a son struggling to survive after the Apocalypse. The extremely minimal style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on of the devastated world as the setting of this novel in some way and the ‘desert’ can become a foundation for the discovery of a new world as well as a *deserta* (absence) where all the material, spiritual, ethical values are dried up. Furthermore, the meaning of the ‘place’ in this novel is seriously impaired. The self-destructive consumerism symbolized by ‘shopping cart’ is distorted into horrible cannibalism in an extremity. The most fundamental truth dying father in this story strives to tell his son who “carries the fire” must be the possibility the continuance of life may bring someday and the courage to live. Like Scheherazade in *The Arabian Nights*, the story of a father and a son who ascertain each other’s existence by exchanging continual talks now gains much acceptance as more powerful environmental book ever written than any scientific and rational persuasion.

Key Words

Narrative(내러티브), Risk Society(위기사회), Internalization(내면화), Empathy/Emotional Synchronism(공감), *The Road* (『로드』)